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97-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년 입양인식조사]

자녀입양 의향, 자녀입양에 대한 ‘나’와 ‘우리 사회’ 인식

2024. 09. 11.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자녀입양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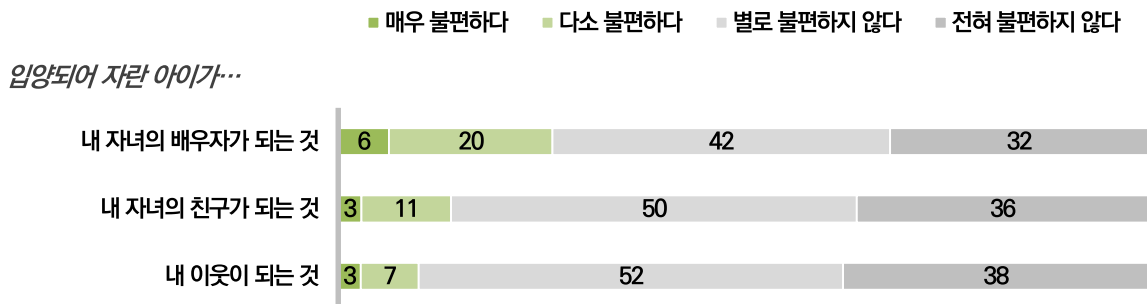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 내 자녀의 측근이 되는 것 불편하지 않아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나, 우리 사회의 시선은 부정적

지난 6월 27일 ~ 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으로 혹은 내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70% 이상이다. 대다수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3명 중 1명 가량이다. 나와 내 자녀가 입양되어 자란 아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대체로 불편한 일은 아니지만,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10%, '내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 14%,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 26%이다.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이 되는 것은 크게 불편한 일이 아니지만, 내 자녀와 가깝게 지낼수록 약간의 신경이 쓰인다는 인식이다.

대체로 입양 자녀에 큰 거부감이 없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2024년 7월 12일 ~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입양에 관한 인식'을 물었다.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 내 자녀의 측근이 되는 것 불편하지 않아 하지만, 내 자녀와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불편함 높아져

(단위: %)



질문: 귀하는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각 상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2%,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은 50%로 92%가 입양에 중간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 작년 대비 긍정 인식은 2%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해 큰 변동은 없다. 입양에 부정적인 인식은 9%로 현저히 적다. 개인의 관점에서, 입양에 대한 수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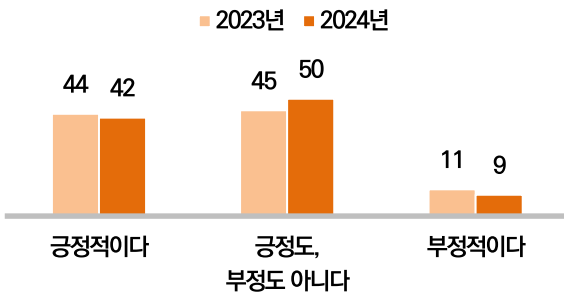
반면 ‘우리 사회’는 입양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37%로, 긍정적이라는 인식(19%)대비 2배 높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응답은 42%이다. 작년 대비 부정 인식은 4%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중간 이하 평가가 79%로 주를 이루고 있다.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다 42%, 지난해와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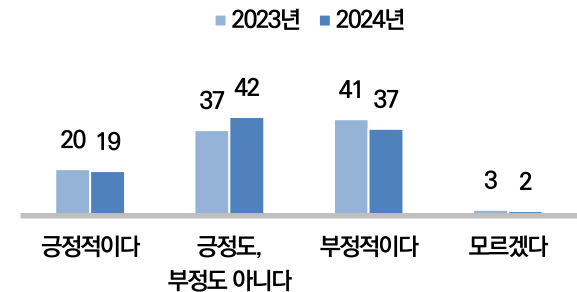
(단위: %)

입양자녀와 입양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부정적이다 37%, 지난해보다 4%포인트 감소

〈 입양에 대한 ‘나’의 인식 〉



〈 입양자녀와 입양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 〉



질문: 개인 -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 - 입양 자녀와 입양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전반적으로 어떠한다고 보십니까?

비고: 긍정적이다(매우 긍정적이다+긍정적인 편이다),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이다+부정적인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7. 7. ~ 7. 10. //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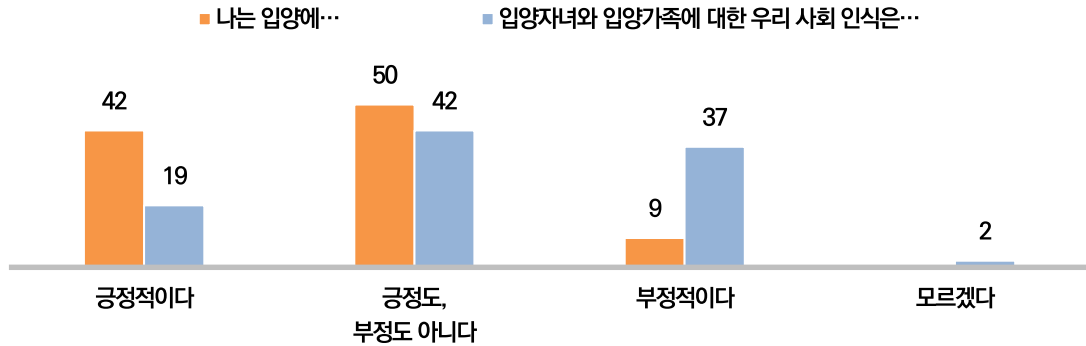
개인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교하면, 개인은 입양에 긍정적이나 사회는 부정적이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나’ 자신은 자녀의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하지만(42%), ‘우리 사회’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은 19%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의 인식(9%)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37%)간의 차이는 28%포인트로 더 크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향후 편견이 개선될 여지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전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18-29세(나는 입양에 긍정적 49%,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14%)와 70세 이상(나는 입양에 긍정적 52%,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20%)에서 3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다. 미혼남녀(나는 입양에 긍정적 46%,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14%), 자녀가 없는 사람(나는 입양에 긍정적 44%,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16%)에서도 30%포인트 내외 차이를 보인다.

입양에 대한 인식, '나'의 평가와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간 차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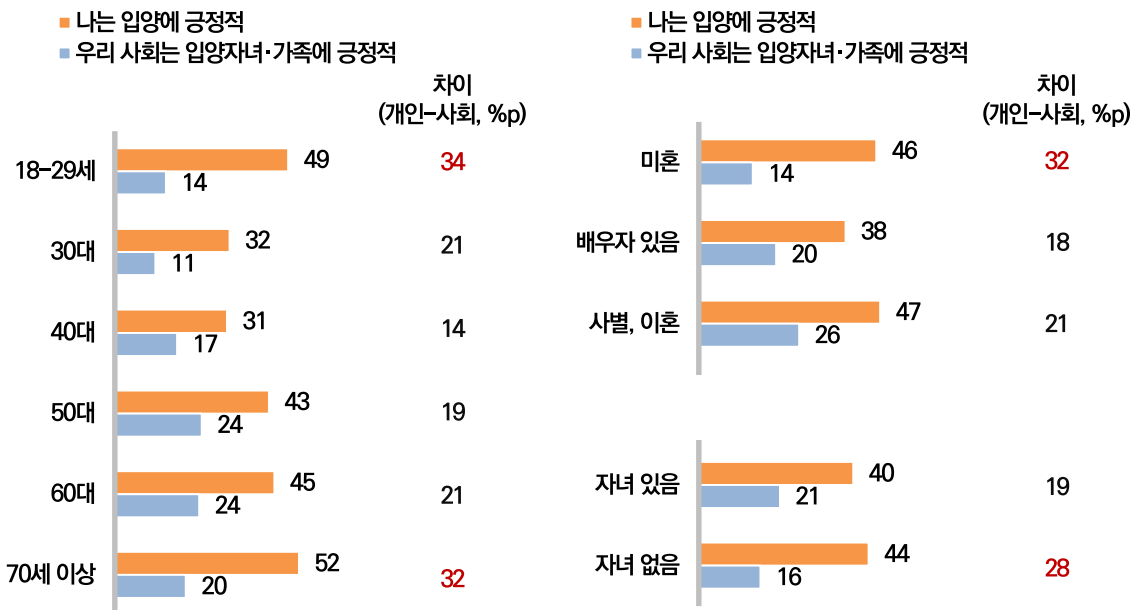
(단위: %)

'나'는 4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우리 사회'는 19%만이 긍정으로 보고 있다고 인식



'나'의 평가와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간 차이

18~29세와 70세 이상, 미혼, 자녀 없는 사람에게서 커



질문: 개인 -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 - 입양 자녀와 입양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전반적으로 어떠한다고 보십니까?

비고: 긍정적이다(매우 긍정적이다+긍정적인 편이다),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이다+부정적인 편이다) 응답 제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자녀 입양은 축하할 일, 하지만 입양 자녀를 향한 우리 사회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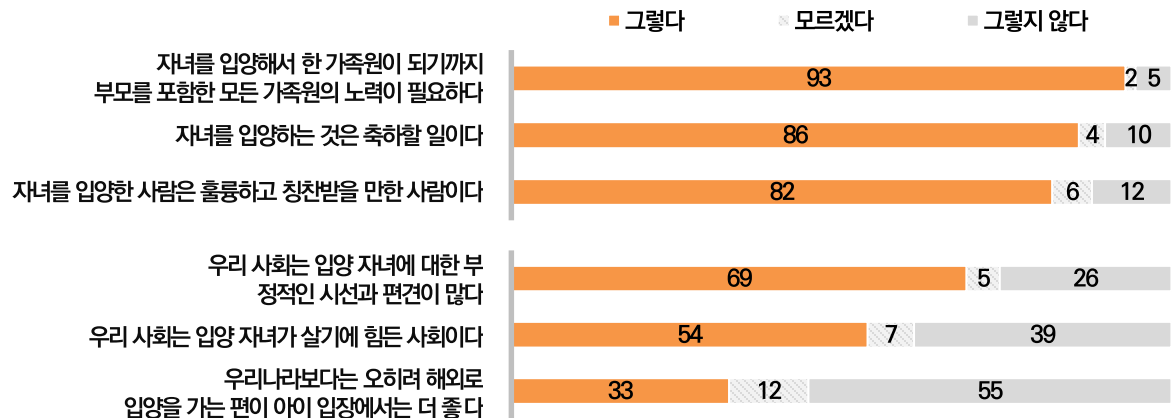
자녀 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 평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녀 입양은 축하할 일이고(85%→86%)', '자녀를 입양한 사람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86%→82%)'이라는 인식이다. '자녀를 입양해 한 가족원이 되기까지 모든 가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작년과 동일하게 93%가 동의한다.

입양 자녀를 향한 따뜻한 시선도 여전하다는 인식이다.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많고(71%→69%)', '입양 자녀가 살기에 힘든 사회(59%→54%)'라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다.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6%\)가 입양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고, 입양가족도 그 중 하나로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가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입양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직 차갑게 느껴진다.

3명 중 1명(33%)은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해외로 입양을 가는 편이 아이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답했다(36%→33%). 해외 입양을 가는 편이 아이에게 더 좋지 않다는 인식이 55%로 과반이나, 적지 않은 수가 해외입양을 권장하고 있다.

입양은 축하할 일, 가족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입양 자녀에 보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고 평가
해외입양이 해결책? 그렇지 않다, 55%

(단위: %)



질문: 입양과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0대 이하는 과반이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에 힘든 사회'라는 데 동의 특히 30대의 46%는 아이 입장에서 해외입양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인식 갖고 있어

세대별, 자녀 입양 긍·부정 평가에 따라 입양 인식에 차이가 있다. 모든 세대에서 입양은 가족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축하할 일이며, 입양자를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자녀 입양에 부정적인 사람 중 32%는 자녀 입양은 축하할 일이 아니고 24%는 자녀 입양자를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40대 이하에서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 힘든 사회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나, 50대 이상은 입장이 엇갈린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절반에 달하지만,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지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30대는 64%가 우리 사회에서 입양 자녀가 살기 힘들고,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인식이 46%로 절반에 달한다.

40대 이하는 과반이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에 힘든 사회'라는 데 동의
특히 30대의 46%는 아이 입장에서 해외입양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인식 갖고 있어

(단위: %)

사례수(명)		자녀를 입양해서 한 가족원이 되기까지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자녀를 입양한 사람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93	5	86	10	82	12
연령							
18-29세	(158)	87	8	84	11	70	16
30대	(149)	93	5	86	8	82	10
40대	(177)	94	6	90	8	84	14
50대	(196)	92	7	84	11	83	14
60대	(173)	96	2	86	11	86	10
70세 이상	(147)	94	5	85	13	85	10
자녀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418)	95	4	93	5	85	10
중간이다	(496)	91	7	84	10	81	12
부정적이다	(86)	91	7	59	32	69	24

사례수(명)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많다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에 힘든 사회이다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해외로 입양을 가는 편이 아이 입장에서 더 좋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69	26	54	39	33	55
연령							
18-29세	(158)	71	17	55	25	37	35
30대	(149)	69	26	63	30	46	35
40대	(177)	74	24	64	32	36	54
50대	(196)	61	35	46	51	28	67
60대	(173)	70	27	52	44	28	64
70세 이상	(147)	72	25	46	48	26	69
자녀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418)	73	24	55	41	31	59
중간이다	(496)	65	29	54	37	35	52
부정적이다	(86)	76	20	56	38	34	49

질문: 입양과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2 입양부모 적합성

독신 남녀, 동성 부부, 동거 커플은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대다수 그 중 독신 여성이 독신 남성보다, 여여 동성 부부가 남남 동성 부부보다 적합하다는 인식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①성년자일 것 ②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③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부모가 성년이라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 남녀, 동성 부부, 동거 중인 이성 커플 모두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독신 여성’이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는 인식은 39%이며,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53%로 절반에 이른다. 독신인 남성은 어떨까? 독신 남성 역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74%로 다수이고, 적합하다는 인식은 18%이다. 독신 남성(18%)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인식은 독신 여성(39%)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동성 부부, 성소수자의 경우에도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6~70%로 다수이다. 그 중에서 여여 동성 부부는 27%가 적합하다고 답한 반면, 남남 동성 부부는 여여 부부 대비 7%포인트 낮은 20%가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성소수자를 모두 포괄해 적합한 정도를 묻은 결과, 72%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적합하다, 18%). 독신 남성(18%)은 여여 동성 부부(27%)보다 적합성이 떨어지고, 남남 동성 부부(20%)·성소수자(18%)와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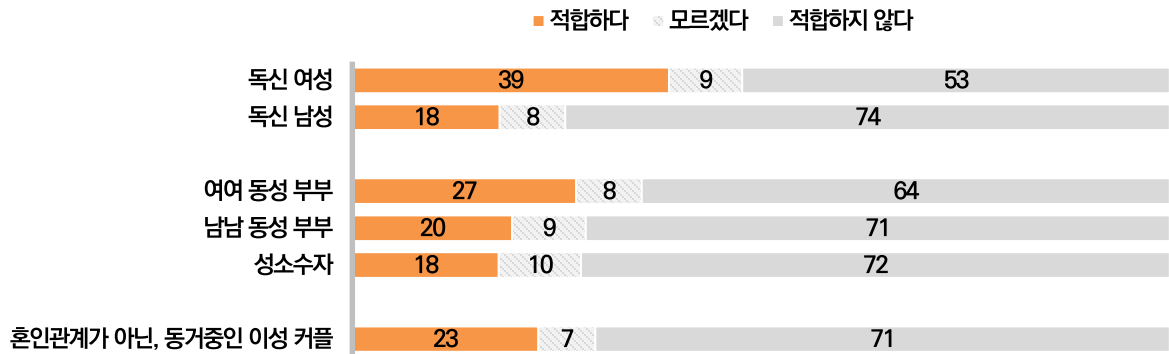
입양부모로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중인 이성 커플은 23%가 적합하고 71%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동거 이성 커플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에,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독신 여성(39%)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중인 이성 커플(23%)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평가보다 16%포인트 높다.

아이를 입양해 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여정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신 남녀, 동성 부부, 동거 중인 이성 커플 등이 모두 입양부모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이나, 그 중에서도 독신 여성의 적합도가 가장 높다. 동일 성별로 이뤄진 성소수자 부부인 경우에도, 남남보다는 여여 부부가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1) 일반양자의 입양,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24.09.05.

독신 남녀, 동성 부부, 동거 커플은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대다수
 다만 독신 여성이 독신 남성보다, 여여 동성 부부가 남남 동성 부부보다 입양부모에 적합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부모 적합성 높아

(단위: %)



질문: 다음 각각의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적합하다(매우 적합하다+적합한 편이다), 적합하지 않다(전혀 적합하지 않다+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29세 여성은 입양부모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 특히 독신 여성·동성 부부에 대한 평가 호의적

독신 남녀, 동성 부부, 성소수자, 동거 커플 모두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과반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양부모의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을까? 18-29세 여성은 독신 남성과 동거 이성 커플을 제외한 독신 여성(54%), 동성 부부(여여 64%, 남남 50%), 성소수자(47%)가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는 데 동세대 남성보다 최소 30%포인트~최대 44%포인트 더 동의한다. 젊은 세대 여성은 남성 대비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이 동성 부부나 성소수자 부모 적합성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0대 남성 4명 중 1명은 독신 남성 혹은 동거 이성 커플이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에서는 동세대의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다.

혼인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 없이 독신 남녀, 동성 부부, 성소수자, 동거 커플 등이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데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 자녀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혹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독신 여성, 여여 동성 부부, 동거중인 커플 등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높다.

18-29세 여성은 입양부모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 특히 독신 여성·동성 부부에 대한 평가 호의적
2·30대 남성의 4명 중 1명 이상, 독신 남성 혹은 동거중인 이성 커플이 부모로 적합해

(단위: %)

'적합하다' 응답		사례수 (명)	독신 여성	독신 남성	여여 동성 부부	남남 동성 부부	성소수자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중인 이성 커플
전체		(1,000)	39	18	27	20	18	23
성별								
남자		(493)	36	21	23	18	16	26
여자		(507)	42	15	31	21	20	19
연령								
18-29세		(158)	39	23	42	33	30	26
30대		(149)	36	20	28	21	22	22
40대		(177)	35	14	29	21	19	22
50대		(196)	39	16	22	18	13	23
60대		(173)	38	14	20	12	11	20
70세 이상		(147)	46	22	24	13	15	24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1)	24	26	20	17	15	34
여자_18-29세		(77)	54	19	64	50	47	19
남자_30대		(77)	34	26	23	24	24	28
여자_30대		(72)	38	14	33	17	20	16
남자_40대		(90)	35	18	28	18	15	22
여자_40대		(87)	36	11	30	24	22	22
남자_50대		(99)	38	18	23	22	15	30
여자_50대		(97)	40	14	20	14	11	16
남자_60대		(85)	37	12	19	8	12	20
여자_60대		(88)	40	16	21	17	9	20
남자_70세 이상		(61)	50	27	26	17	18	24
여자_70세 이상		(86)	44	18	23	11	13	23
혼인상태								
미혼		(291)	42	24	38	29	28	29
배우자 있음		(591)	38	15	22	14	14	20
사별, 이혼		(118)	37	16	29	21	14	2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46)	37	15	23	16	14	20
자녀 없음		(354)	42	23	35	27	25	28
자녀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418)	50	21	36	26	24	27
중립		(496)	32	15	22	15	14	20
부정적이다		(86)	25	20	15	14	11	19

질문: 다음 각각의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적합하다(매우 적합하다+적합한 편이다)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자녀입양 의향

5명 중 1명(21%), 자녀를 입양할 의향 있어...작년 대비 3%포인트 감소 18-29세의 3명 중 1명(31%), 자녀 입양 의향 있어

이번 조사에서 5명 중 1명(21%)은 향후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입양 의향이 없다는 인식은 79%이다. 입양 의향은 작년 대비 소폭(3%포인트) 감소했다.

세대와 자녀 입양 의향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18-29세는 31%가, 70세 이상은 14%가 입양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양육의 주요 세대인 30대를 비롯해,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자녀 입양 의향은 20% 안팎이다. 모든 세대와 집단에서 입양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이다. 그 중에서도 미혼(33%), 자녀가 없는 사람(31%), 자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39%)의 입양 의향은 30%를 상회한다.

5명 중 1명(21%), 자녀 입양 의향 있어...작년 대비 3%포인트 감소

(단위: %)

18-29세, 미혼, 자녀 없는 사람,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사람의 입양 의향은 30% 수준

■ 2023년 ■ 2024년



2024년 7월 조사



질문: 향후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비고: 의향 있다(매우 크다+있는 편이다), 의향 없다(전혀 없다+없는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7. 7. ~ 7. 10. // 2024. 7. 12. ~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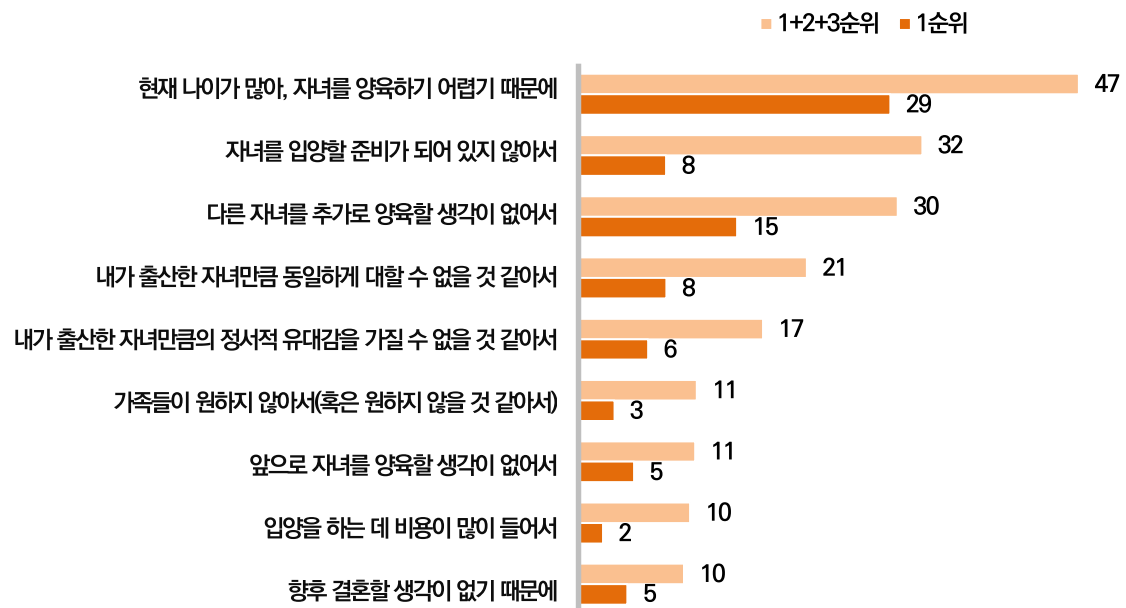
입양을 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 양육 계획 없어서’

79%가 향후 입양 의향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입양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가 47%(1+2+3순위)로 가장 높고, 3명 중 1명은 ‘자녀를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32%)’ 혹은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30%)’를 꼽는다. 5명 중 1명 정도는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17%)’와 같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다.

입양 의향이 없는 이유는 세대, 혼인상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50대 이상은 70% 가량이 나이가 많아 입양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30대, 미혼 응답자는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입양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가 높다. 또한 2·30대, 미혼,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앞으로 결혼이나 자녀 양육 계획이 없다는 인식도 높은 편이다. 이들은 **결혼과 내 아이를 갖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지 필수는 아니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자녀 입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 대비 입양 자녀와 출산 자녀를 동등하게 대하고 교감할 수 있을지에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입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47%)’,
‘자녀 입양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32%)’,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30%)’ 등

(단위: %)



질문: 입양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상위 9개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입양 의향 없다고 답한 79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입양을 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는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 양육 계획이 없어서'

(단위: %)

향후 자녀입양 의향 없음 (1+2+3순위)	사례수 (명)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 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 할 생각이 없어서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정서적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혹은 원하 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	입양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체	(790)	47	32	30	21	17	11	11	10	10
연령										
18~29세	(110)	1	36	0	33	35	11	26	7	25
30대	(116)	10	32	27	23	25	7	20	15	12
40대	(143)	45	29	50	22	12	14	12	14	13
50대	(154)	68	26	39	17	7	12	6	9	8
60대	(141)	72	40	28	20	13	8	1	11	2
70세 이상	(126)	67	30	27	15	17	12	4	7	2
혼인상태										
미혼	(196)	12	33	1	22	24	10	32	13	35
배우자 있음	(502)	56	33	40	23	16	11	4	9	0
사별, 이혼	(92)	71	24	35	12	9	15	1	11	1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46)	61	32	43	22	15	12	0	10	2
자녀 없음	(244)	15	33	0	20	23	9	35	12	28
자녀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254)	57	32	26	11	12	9	13	11	12
중립	(451)	44	33	32	25	18	12	10	9	9
부정적이다	(85)	31	28	27	33	27	13	12	14	10

질문: 입양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상위 9개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입양 의향 없다고 답한 79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자녀에게 입양 사실 공개해야 한다 86%

입양한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한다면, ‘영유아기’ 혹은 ‘성인이 된 이후’가 적당

10명 중 8명 이상(86%)은 입양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인식이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한 사람은 14%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의 6분의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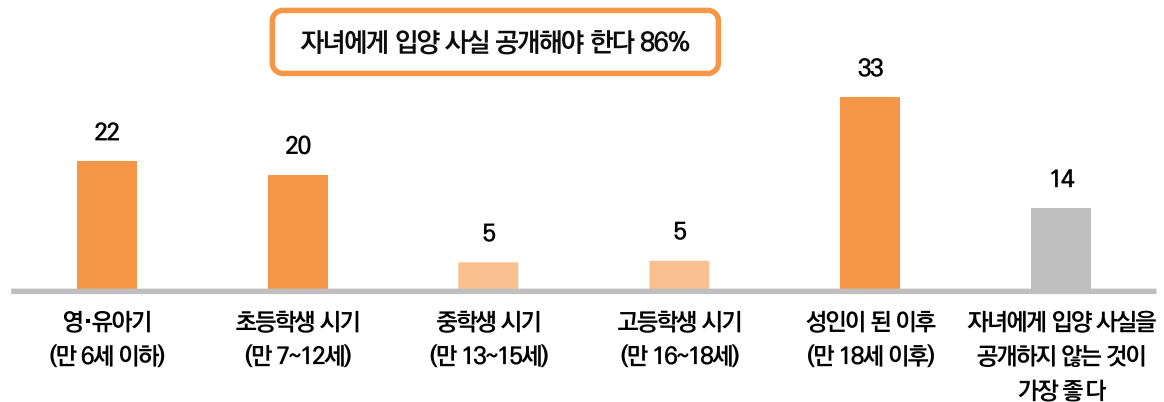
그렇다면, 언제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 ‘성인이 된 이후(만 18세 이후)’가 33%로 가장 높다. 이어서 ‘영·유아기(만 6세 이하)’(22%), ‘초등학생 시기(만 7~12세)’(20%) 순이다. ‘중학생 시기(만 13~15세)’(5%), ‘고등학생 시기(만 16~18세)’(5%) 공개가 적당하다는 인식은 5%에 그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제가 되었든 입양 사실은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시기를 본다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시절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고등 시절은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혹은 이미 시작된 나이이고 입시 등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민할 시기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자녀에게 입양 사실 공개해야 한다 86%

(단위: %)

입양한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한다면, ‘영유아기’ 혹은 ‘성인이 된 이후’가 적당



질문: 만약 입양한 자녀에게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언제 알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인식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금과 같이 만 18세 직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적당하나 증액 필요해 작년에 이어 연령 기준 유지해야… 소폭 증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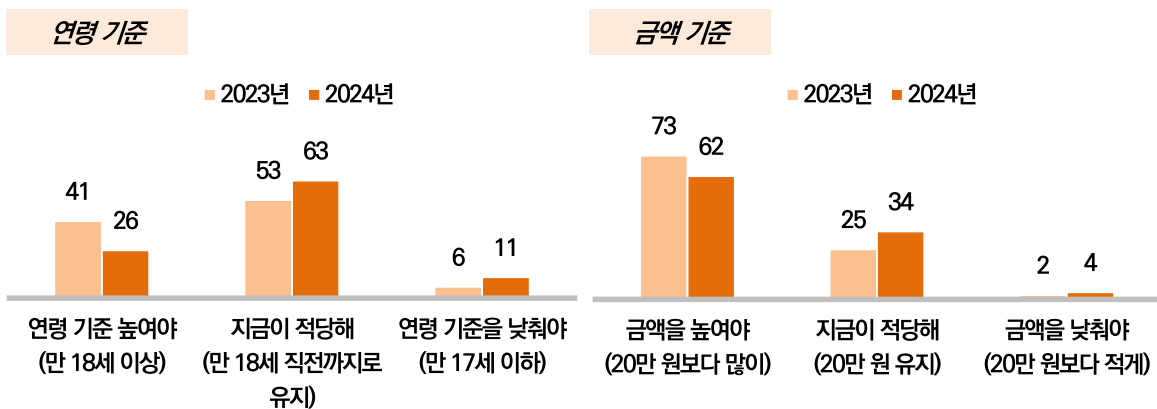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의료비·아동교육지원비·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5조제1항). 그 중에서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자녀를 국내 입양한 가정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입양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작년에 이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연령 기준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지급 연령 기준은 '지금과 같이 만 18세 직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63%로, 작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26%)'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만 17세 이하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11%)'는 입장은 10명 중 1명 뿐이다.

지원 금액은 '20만 원에서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62%로 과반이다. 작년 대비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11%포인트 감소했으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3명 중 1명은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34%)'는 인식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다.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친다. 정리하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연령 기준은 지금이 적당하지만 지원금은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60%를 상회한다. 작년에 이어, 증액 인식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20만 원은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이 다수이다.

작년에 이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연령 기준은 '만 18세 직전까지', 현재 기준 적당하지만
지원금은 현 수준에서 증액이 필요해

(단위: %)



질문: -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입양아동의 연령 기준(만 18세가 될 때까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입양 자녀 1인에 매달 주어지는 입양수당은 '2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7. 7. ~ 7. 10. //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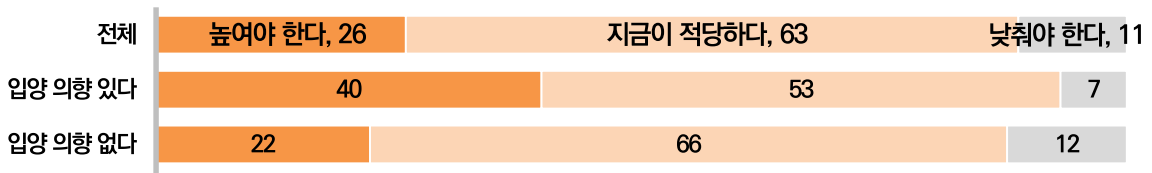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 '입양아동 연령 기준 완화' 및 '입양수당 증액 필요성' 전체 응답보다 높아 입양아동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높여야' 40% 입양수당, '20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75%

앞서 확인했듯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입양아동의 연령 기준은 지금이 적당하고, 입양수당은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다. 입양 의향 유무와 관계 없이 모두 과반이 전체 응답에 수렴한다. 그 중에서도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40%로, 입양 의향 없는 사람(22%)의 응답 대비 2배 가량 높다. 입양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75%가 동의해, 입양 의향 없는 사람(59%)보다 많은 수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입양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입양 의향 있는 사람,
입양아동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높여야' 40% 입양수당, '20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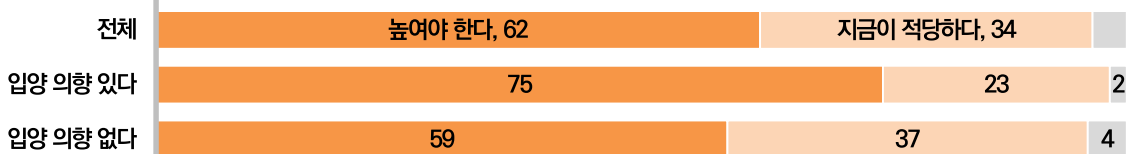
(단위: %)

연령 기준을...



입양수당을...

낮춰야 한다, 4



질문: -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입양아동의 연령 기준(만 18세가 될 때까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입양 자녀 1인에 매달 주어지는 입양수당은 '2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7. 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입양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입양을 관리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입양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혼인·출산·양육의 주요 세대인 30대가 보는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에 녹록지 않다. 오히려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충하는 지점이다.

입양 의향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2·30대의 입양 의향은 10명 중 2~3명 꼴이다.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입양아동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입양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입양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6월 기준 전국 9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0,416명, 조사참여 1,605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9%, 참여대비 62.3%)
조사일시	• 2024년 7월 12일 ~ 7월 1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